

# 염불과 조가집전... 상주 혼자일때 큰 도움

## 염불자원봉사단 활성화 필요성 높아져

살아서는 불자, 죽어서는 가톨릭?

왜 하필 장례염불봉사일까. 상갓집에 가면 액운이 묻는다고 꺼려하는 마당에 몇몇 불자들은 장례식장만 찾아다니며 염불 봉사를 고집한다. 맑으면 한 달에 5~6차례나 영안실을 찾는다.

“가톨릭에서 하는 장례미사는 차분하고도 격조있게 거행되더라구요. 그러나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그들의 장엄한 의식이 부럽다고 개종할 수는 없잖아요. 죽은 이나,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이나 그들 모두 불교 장례의식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을 늘 했습니다.”

조계종 염불자원봉사단 유심보 보살은 불교도로서 이웃종교의 장례의식을 부러워하던 중 염불봉사단이 있던 이야기를 듣고 봉사단에 가입하게 됐다. 불법의 수습을 평생 신실하게 따르던 가족, 친지, 이웃들이 인연이 다하면 고이 받아들여달 수 있도록 축원해 주고 싶었다.

유 보살은 3년 전부터 활동해왔지만 조계종 염불봉사단이 생겨난 것은 지난 2009년. 벌써 300여명이 단원으로 등록했고 실제 활동인원은 50여명 정도다. 이들은 요일별로 6~10명씩 나누어 활동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각 탐별로 움직인다. 보통 장례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영결식장을 찾아 장엄염불과 조가 등을 집전하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빈다. ‘고운님 잘가소서’, ‘빛으로 돌아오소서’ 등의 추모곡을 부를 때는 유족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마련이다. 30여분에 불과하지만 고인을 추도하는 의식 속에서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묶인다.

조성희(38)씨는 장례식장을 찾아와 준

조계종 염불자원봉사단 덕에 어머니의 마지막 길이 풍성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 지인만 참석한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후시나 쓸쓸해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봉사단원분들이 좋은 곳 가시라고 염불과 노래로 영가길을 꾸며드리신 걸 보고 뿌듯했다”며 “평소 집과 절 밖에 모를 정도로 문독한 신심을 지녔던 어머니께서도 도반들이 정도왕생을 빌어줘 흡족하셨을 것”이라고 봉사단에 고마움을 전했다.

염불자원봉사단의 역할은 망자축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 2009년 3백여 회원으로 출발

### 요청시 요일별 6~10명씩 팀별활동 네트워크 절실...상장례 표준화 과제

신도들 중에서 상을 당한 이들이 있으면 꼭 조계종 염불자원봉사단을 찾는다. 자우 스님(비로자나 국제선원 주지)은 “염불봉사단을 통해 위로받는다”고 말하는 유가족들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상주가 혼자일 경우는 의미가 더 각별하다. 유족들에게 집단예도의식은 슬픔·미련 등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이별의식으로써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 봉사단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현재 조계종 염불자원봉사단이 활동하는 지역은 서울, 수도권 일부로만 한정 돼 있다. 때문에 지방에서 염불봉사단 파견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돌려보내야만



불자 탈렌트 선우용녀씨가 지난해 6월 부군상을 당했을 때 조계종 염불자원봉사단이 현장을 찾아 애도했다.

하는 처지다. 햇수로 7년째 접어들었지만 홍보가 부족한 탓에 아직 전국단위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홍보는 아무래도 사찰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스님들이 염불봉사단의 필요성이나 가치에 대해 아직 관심을 덜 기울이는 탓이다. 재가자가 염불의식을 집전하는데 대한 거부감 역시 스님들 사이에서 높다는 것도 염불봉사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다.

봉사단 지도법사 무관 스님은 “염불봉사단의 역할은 오로지 장례식장에서만 염불과 조가로 애도하는데 그칠뿐 일부 스님들이 염려하듯 입관, 발인, 화장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며 “결교 시다림하는 스님의 역할을 잠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스님이 의식을 집전한다면 염불봉사단은 보조를 맞춰 장엄염불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봉사단의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측도 올해 적극 홍보활동에 나설 생각이다. 조계종 포교원과 협의해 전법단 등

각 조직 단위마다 봉사단을 알리고 각 지역에서 단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염불봉사가 실행문화로 정착돼 종래는 각 지역 사찰 염불봉사단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장례 의식 표준화라는 선결과제가 남아있다. 정해진 의식과 절차가 없으니 사찰마다, 의식을 집전하는 이들마다 순서도 인사법도 다르다.

봉사단의 또 다른 지도법사 도영 스님은 “장례식장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독경할 수 있는 염불 모형, 예법 등이 있어야 한다”며 “불교 장례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쉽고 보편화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장례 의식 표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조계종 의례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작업을 올해 안에 이뤄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배해진 기자 linus@hyunbul.com

## 부산 남구 불교, 소외이웃에 쌀·기금 전달

2월 2일, 1천3백만원치 부산 남구청에 기탁

부산시 남구 불교연합회(회장 지원)가 500만원 상당의 쌀 100포대와 성금 800만원을 2월 2일 부산 남구청에 전달했다.

기금은 지난해 12월 25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소외 이웃 돕기 하루차집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부산시 남구 불교연합회는 하루차집에서 모금된 기금으로 설날을 앞두고 소외이웃에 뜻깊게 쓰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부산시 남구 불교연합회장 지원 스님(문수사 주지), 수석부회장 화랑

스님(동명불원주지), 사무총장 호명 스님(무문홍법사 주지), 감사 능후 스님(공덕원 주지)을 비롯해 각 사찰 신도 임원들과 부산 남구청 이종철 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 남구 불교연합회는 부산시 남·수영구 불교연합회에서 분구해 2013년 10월 재창립했다. 이후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1회씩 하루차집을 개최해왔으며, 소외이웃 돕기를 위한 연탄 나눔 등의 자비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배해진 기자



2월 2일 부산 남구 불교연합회가 남구청에 소외이웃 돕기 쌀 100포와 성금 8백만원을 전달했다.

## 역삼수련관, ‘달달한’ 행복 음악회

2월 13일 수련관서...16일에는 서울대 견학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제가 열린다.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가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과 구민을 위한 행복한 수련관 음악축제’를 2월 13일 오후 3시 역삼청소년수련관 1층에서 진행한다.

이번 음악제에는 소프라노 벨라 정, 테너 김현호 씨 등이 참석해 발레타인 데이를 주제로 한 무대를 선보인다.

수련관 측은 “발레타인 데이라는 기념일을 테마로 마련된 무대인만큼 초콜릿 같은 달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남녀 듀엣곡과 피아노 3중주곡을 지역민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지역사회 소외 청소년 지원을 위한 모금, 드레스코드 이벤트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지난 1월에는 영화 OST를 테마로 음악회를 열어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도 매월 1회 다양한 테마로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음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노래컴터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을 위해 대학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지난 1월 진행된 역삼청소년수련관 음악회.

는 서울대로 견학을 떠날 예정이다.

학교캠퍼스와 교내 학교를 둘러본 다음 학교 역사와 학과 종류,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재학생과의 만남도 준비되어 있어 진학과 대학 생활에 관한 전반적 궁금증도 풀이할 수 있는 기회다.

2월 16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중·고등학교생 40명을 모집한다. 비용은 무료다. 신청은 노래컴터 홈페이지(http://www.ysnae.or.kr)에서 받는다.

센터장 보련 스님은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목표의식을 형성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말하며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02)550-3625

배해진 기자



### 막바지 겨울... 그래도 따뜻하게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등유, 쌀 등을 전달했다. 지난 1월 2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원봉사자 34명은 재단 직원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39곳에 총 3백만원 가량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27기에는 연탄 5백장이, 4가구에는 가정용 등유가 각 20만원치 지급됐으며 35가구에는 쌀 20kg 한 포대씩이 전달됐다. 재단측은 “겨울 난방비 부담을 가진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광진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에서는 카페 ‘사랑의 와플하우스’에서 일할 어르신들을 모집한다. 사랑의 와플하우스는 복지관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카페다. 만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3명이다. 카페 근무자를 우대한다. 사랑의 와플하우스는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개점했다. 음료와 와플 등을 파는 소규모 카페로 전문 커피 로스팅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 카페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윤은 취약계층을 위한

## 광진복지관, 사회적 기업 참가자 모집

카페 사랑의 와플하우스...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광진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에서는 카페 ‘사랑의 와플하우스’에서 일할 어르신들을 모집한다. 사랑의 와플하우스는 복지관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카페다. 만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3명이다. 카페 근무자를 우대한다. 사랑의 와플하우스는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개점했다. 음료와 와플 등을 파는 소규모 카페로 전문 커피 로스팅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 카페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윤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와플하우스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서비스제공으로 다시 사회에 환원된다. (02)466-6242

배해진 기자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 사단법인 한국불교정토종

총무부장 설정 이사장 설진

원로의장 법보	총회의장 혜명	총무부장 도선	포교원장 해조	이사 설정
원로의원 보덕	총회부의장 해조	규정부장 도의		혜명
	경북부의원 자운, 자명	문화부장 해성		해조
	경남부의원 도선			도선
	경남동부의원 설봉			지산
	경남서부의원 정각			
	전북남부의원 혜원			감사 자명
	강원동부의원 선주			
	충남북부의원 설해			
	인천남동의원 혜림			
	인천남부의원 보경			

중도 임종을 환성 합니다

- ◆ 구비서류 : 등본 2통
- ◆ 사진 : 3장 ◆ 이력서 : 1통

중도 일동

한국불교정토종이 새롭게 태어 납니다

총무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대로 495번길10-1(계산동) 덕수사 / 전화 032)543-2693